

---

---

# 청미래 밥상 운동 희망 보고서

---

---

민 형 기

청미래 자연식 뷔페 대표



# 청미래 밥상 운동 희망 보고서

## 민 형 기

청미래 자연식 뷔페 대표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메카로서 이 땅을 지속 가능한 건강한 로하스 세상으로 앞장 서서 이끌어 가고 있는 귀 군과 주민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울진군의 <친환경농수특산물 전문식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미래 밥상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1. 청미래 밥상 사업

청미래는 ‘밥상이 약상’이라는 화두아래 ‘자연식 뷔페’를 시작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청미래는 일반 채식 전문 식당을 능가하는 곡채식 식단에다 어류, 육류가 포함된 친환경 식 자재로 한국 전통밥상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실험적 노력과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친환경 식당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500여 가지의 레시피가 개발, 더욱 풍성하고도 알찬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미래 식당은 ‘자연식 운동의 전진 기지’라는 매스컴의 평가 함께 일반 식당의 한계를 넘어 많은 고객들에게 자연식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밥상 연구와 함께 자연식 사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유기농 출장 뷔페’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으로 대중과 더욱 친밀한 밥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미래는 지금까지 1,000회가 넘는 많은 출장 뷔페와 구체적인 친환경 밥상 체험을 통해 ‘자연식’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확립된 유기농 출장 뷔페에 대한 사업적 노하우는 청미래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작게는 30~40명의 소규모 뷔페부터 많게는 1,000여명이 함께 하는 흥겨운 밥상이 차려져, 지난 한 해만 해도 300여 회의 출장 뷔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200명이 넘는 하객들과 함께 문화적 운동 차원에서 치루어진 ‘청미래 친환경 자연식 결혼 피로연’도 신선하고도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초청된 청미래의 친환경 자연식 밥상은 자연식 운동의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 2. 청미래 자연생활 건강 교육

청미래가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목표는 ‘밥상 살림’입니다. 이는 식당 사업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생태 생활교육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염곡동 구룡산에 2,000여 평의 ‘청미래 야생초 농장’을 조성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300여 가지의 들나물, 산나물, 약초밭이 조성된 이곳에는 각종 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점 프로그램은 예비 신랑 신부, 잉태를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1박 2일 임신, 태교, 출산, 육아 교육’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텃밭인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결혼 예식은 예식장에서 열리는 편의 위주의 결혼식을 지양하고 사찰, 교회, 성당을 비롯한 일반 장소에서 친환경 재료들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들면서 참석한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혼인 잔치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제가 되는 잔치문화 회복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청미래의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심신 정화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3. 청미래 오아시스 자연식 운동

청미래의 자연식 운동의 청사진은 뚜렷합니다.

전 국민이 하루 한 끼 자연식 먹기’ 운동으로 집약됩니다.

전 국민이 하루 한 끼 자연식 먹기가 실현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질병의 고통과 사회의 여러 병리현상이 훨씬 줄어들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하루 세끼는 어렵더라도 한 끼만이라도 자연식을 하자.”는 운동을 많은 분들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청미래가 지향하는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십 리에 하나씩’ 청미래 자연식 밥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끼 5~6천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박하면서도 풍요로운 밥상을 만들면 누구나 쉽게 자연식을 가까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미래의 비전은 무너진 밥상, 독(毒)상의 정글 속에 10리에 하나씩 ‘청미래’라는 오아시스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청미래’의 시스템은 유기농 식당과 매장이 같은 장소에 만들어져

- 식당에서는 올바른 자연식을 체험하고
- 매장은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식자재 공급은 물론 건강 및 자연식 식생활을 위한 상담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청미래 종합 교육원에서는 식생활 개선, 바른 식생활을 통한 자녀 교육,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미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랑방이 되어 믿을 수 있는 소통의 장소이자 직거래 장터가 됩니다.

### 4. 청미래 생협 오픈 준비

몇 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준비해 온 또 하나의 역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것은 청미래 고객과 회원 중심의 생협 활동입니다. 청미래 식당을 방문하시는 고객들은 생명 의식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분들이 많으며, 청미래에 대한 고객의 신뢰감 또한 높습니다.

청미래의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한 회원들은 대부분 생협 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3월

중순 경 모든 준비를 마치고 회원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미래의 생협은 기존의 생협들 보다 발전, 진보된 생협 활동이 이뤄질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진정한 도농불이(都農不二)의 정신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짧은 지면에 지나치게 많은 얘기를 담은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자연식 운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아 온 열정으로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귀 군과 ‘청미래’의 의미 있는 동행을 기대합니다.”